





# 당창건 70돐을 성대히 경축한 승리자의 기세드높이 계속 힘차게 앞으로!

## 수십만t의 석탄 증산, 2만 수천m를 더 굴진

### 석탄공업부문의 각지 탄광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떨쳐나 증산투쟁을 벌려온 석탄공업부문의 각지 탄광일꾼들과 탄부들이 자랑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난해 석탄공업부문과 화력발전소들에서 혁신을 일으킨 기세로 석탄과 전력생산량을 높이며 전기를 극력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단단한 전력수요를 보장하는것과 함께 전기문제를 전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현실성있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각지

탄광에서 1월부터 9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수십만의 석탄을 더 생산하고 2만 수천m를 더 굴진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석탄공업성에서는 화력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탐사와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고 석탄은 반증력을 높일데 대하여 주신 유언을 철저히 관철하여 석탄생산은 보다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용이 큰 작전을 펼

치고 그 수행을 위한 투쟁에로 일꾼들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뿐만아니라 현실에서 은을 내고있는 판성식적제반반성비를 막장들에 대대적으로 도입하여 질적지표를 개선하고 생산의 팽창적성장을 가져오기 위한 사업을 단위들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하였다.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대포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고 특장청년탄광, 평대탄광, 남양탄광, 형봉탄광, 조양탄광, 자강도공급탄광, 개천탄광, 옥명탄광에서 생산적양양의 불길이 새차게 타올라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주요부문들에도 많은 석탄을 생산보내주었다.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대포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고 특장청년탄광, 평대탄광, 남양탄광, 형봉탄광, 조양탄광, 자강도공급탄광, 개천탄광, 옥명탄광에서 생산적양양의 불길이 새차게 타올라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주요부문들에도 많은 석탄을 생산보내주었다.

덕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에서는 석탄생산에 굴진을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유언을 높이 받들고 기본굴진과 준비굴진에 의한 확보탄량을 늘이면서 판성식적제반반성비를 도입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가까운 앞날에 석탄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는 전방을 열어가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함남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탄광들에서 생산적양양의 불길이 새차게 타오르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탄광기업소에서는 석탄은반을 다양화할데 대한 당정책의 요구대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 석탄은반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 9월에 도 탄광들에서 높이 내세운 석탄생산계획을 수행하도록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석탄공업부문의 탄광들에서 생산의 전방을 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원성청년탄광에서는 석탄생산과 선별과정에 나오는 버려진 석탄을 처리하기 위한 삭도공사를 성과

적으로 끝내며 이어 우리 나라 탄광부문에서 처음으로 석탄을 삭도로 운반하기 위한 공사가 힘있게 벌어졌다.

해당 과학연구부문의 과학자들의 방조밑에 탄광일꾼들과 기술자들은 3경삭도화를 실현하는데 이어 5경삭도화공사도 성과적으로 끝내었다.

제남탄광 일꾼들과 탄부들은 석탄은반문제를 적극적으로 풀데 대한 당정책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할 임무를 안고 섬멸전을 벌이였으므로 5경구역에 새로운 벨트콘베어수송선을 놓아 석탄생산은 보다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리고있다.

남덕탄광과 봉천탄광에서 진행된 벨트콘베어수송공사도 계속되었다.

섬의 작전밑에 서부지구와 북부지구 탄광들에서 석탄생산능력을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방굴진대상공사들도 힘있게 추진되었다.

각지 탄광기계공장들과 공무기자들에서 보다 작은 로터와 자재로 석탄생산은 높이는데 필요한 설비와 기공, 벨트콘베어, 수송선 설비부품들을 자체로 제작하여 들끓는 대고조작장들에 보내주었다.

석탄공업부문의 일꾼들과 탄부들은 배두의 혁명정신, 배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파고파 뚫고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각지 경공업공장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어주신 새 세계 산업혁명의 불길들이 경공업설비와 생산공정의 현대화, 경영활동의 과학화실현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전진, 신발을 비롯한 주요경공업제품생산량을 높이고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겠다는 만만한 루지와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가지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어주신 새 세계 산업혁명의 불길, 최첨단과학기술의 열풍을 더욱 새차게 일으키며 생산설비와 공정의 현대화와 경영활동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여야 합니다.》

경공업성 일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대로 하루빨리 경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여 소비품생산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조직적지시, 치밀하고 능동적인 경제조직사업을 통하여 각지 경공업공장 로동계급의 혁명적열정과 창의성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방직공업관리국, 신발공업관리국, 방직기계공업관리국 일

들은 단계별현대화목표와 대상을 명백히 정하고 모가 나게 일관을 벌려 생산정성률과 제품의 질제고에서 뚜렷한 전진을 가져오도록 하였다.

김정숙영양방직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후대사상, 미배사상을 정히 받들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학생들의 집을 개선하기 위한 생산공정을 더 살구 무리데 대하여 주신 과업을 결사관철하여 원성산에서 혁신을 이룩하였다. 공장, 로동자, 기술자들은 창조적지혜와 협조를 강화하여 학생복결합원생산기계를 새로 꾸리고 심지천생산공정을 훌륭히 완성하였다. 화학섬유방직종합직장 로동자, 기술자들도 여러대의 편조기를 현대적인 설비로 개조하여 방직준비공정의 생산성을 훨씬 높였다.

사리원방직공장에서 사프린 생산공정의 현대화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공장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소면기, 편조기, 조방기, 정방기 등 10여대의 방직설비들을 새로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사프린을 정성껏 생산하여 보내줄수 있는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일식으로 갖추었다.

큰 능력의 데트론인전제보물 생산공정을 몇몇사이에 성과적으로 꾸려놓은 사리원엔에군인제복공장에서 생산을 활성화하여 우리 당의 후대사상, 인민사랑이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게 하고있다.

편직공업관리국에 평양양말 공장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강령적 과업을 심장에 새겨두고 힘있게 떨쳐나섰다. 이들은 양말바지생산에 필요한 여러가지 현대적인 설비들로 생산공정을 꾸리고 올해에 들어와 1.4분기안에 16만 7천여매의 질 좋은 양말바지를 생산하여 소학교입학생들에게 보내줌으로써 인민들의 호평을 받았다.

신발공업관리국에 각지 신발공장들에서 신발을 더 질 좋게 생산하기 위한 불꽃같은 전투를 벌였다. 평양신발공장, 보통강신발공장을 비롯한 20여개 공장에서는 이바진 설비들을 짧은 기간에 새로 설치하고 일제히 신발생산에 들어갔다. 평성합성가죽공장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습식롤러우레탄합성가죽 및 외검부조생산기술공정을 확립한데 맞게 날로 높아지는 질적 및 량적요구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 관철을 위한 충정의 전투속에서 류현신발공장 로동계급도 생산과 과학기술을 밀착시켜 다용도, 다양화, 다색화면 갖가지 신발을 더 질 좋게 만들어내고있다.

평양가르름공장 로동자, 기술자들은 학생복원생선에 필요한 여러대의 현대적인 설비들을 짧은 기간에 설치하고 정성껏 동을 보장함으로써 생산에서 커다란 은을 내고있다. 또한 유언대적기에 필요한 창대의 국산설비를 빛나게 실현하여 10월의 대축전장에 자랑한 로력적성품을 안고 당당히 들어섰다.



뜻깊은 올해를 높은 생산성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찍음

안주뽕프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이 각종 뽕프특성시험장치의 현대화를 실현하였다.

뽕프의 회전수와 동력소비량 등을 컴퓨터를 리용하여 정확히 측정할수 있게 된 특성시험장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뽕프의 질을 확고히 담보하고 효율이 높은 뽕프개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끌어올리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며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공장의 일꾼들은 뜻깊은 올해에 뽕프의 질을 개선하고 성능이 더 높은 뽕프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특성시험장치를 현대화할 목표에 그 실현을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일꾼들은 대축전에 들어가 특성시험장치의 현대화실현이 가지는 중요성을 실감했기 때문에 특성시험장치를 현대화할 목표를 그 실현을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공장의 일꾼들은 뜻깊은 올해에 뽕프의 질을 개선하고 성능이 더 높은 뽕프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특성시험장치를 현대화할 목표에 그 실현을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공장의 설계집단은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며 현대화방안에 맞게 건물개건과 특성시험장치 부분들에 대한 설계를 하나하나 완성하였다.

설계원들인 김동진, 한정진, 최남철, 박철철동무들은 기능공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설계과정에 제기된 여러가지 기술적문제를 해결하여 빠른 기간에 특성시험장치의 현대화를 실현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특성시험장치를 설치할 건물개건공사를 맡은 건설직장 로동자들이 앞선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공사속도를 부쩍 높였다.

부분품생산은 맡은 제단직장과 공무직장의 기능공들은 뽕프생산은 다그치는 속에서도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 필요한 특성시험장치의 부분품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인 강예성, 안현수동무들은 시험장치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현실적조건에 맞게 연구개발하여 현대화사업이 정해진 기간에 높은 수준에서 계속되도록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곳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재의 힘과 기술로 대를 현대화한 특성시험장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뽕프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검사할뿐 아니라 그 질을 높은 수준에 끌어올릴수 있는 확고한 전방을 열어놓은것으로 된다.

조선속도창조투쟁의 불길은 이 날에 날마다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는 기계공업성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랑한 성과를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있게 들어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맞서고 사회주의수호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방패를 당당히 일흔들며 혁명적대항사로 빛내여야 하겠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기계공업성에서 지난 9월 30일까지 연간인민경제계획을 115%로 넘쳐 수행하였다. 발전설비생산계획을 131%로 넘쳐 수행한것을 비롯하여 전동기, 변압기, 감속기, 전선생산 등 지표별계획수행에서 뚜렷한 성과가 이룩되었다.

기계공업성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의 구호를 배에 쏘아박고 일꾼들과 로동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한다면 백 번 승리한다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올해 기계공업성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점령해야 할 목표는 지난 시기에 비할바없이 확대되었고 막이내서는 난관도 많았다.

성당조직을 비롯한 기계공업성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대중의 정신평발전에 10월의 대축전과 이어진 승리의 길이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행정경제 일꾼들이 대상설비와 부속품의 생산조직과 지휘도 화신으로 해나가도록 하였다.

성에서는 중요대상설비들과 인민경제선생부문에 필요한 설비를 제때에 보내주는것을 선차적인 과업으로 내세우고 정초부터 경제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성일꾼들이 화신의 기관차마루 들끓는 현실에 내려가 걸린 고리를 적극적으로 풀어주면서 아예단위 일꾼들과의 협동작전을 잘하여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는 로동계의 투쟁에 거센 박자를 가해 주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이 어려웠는데 인민중기계연합기업소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발전설비생산에서 경이적인 성과를 안아왔다.

대인의 로동계급은 올해에 청천강계단설비발전소건설장에 보내준 발전설비생산은 빛나게 계속해나가고 있다. 불과 석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의 발전설비들을 성과적으로 생산보장함으로써 당이 준 과업을 결사관철하고 연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연합기업소일꾼들과 로동자들은 당의 요구처럼 물과 불속에이라도 뛰어들어 기어이 해내야 한다는 투철한 각오를 안고

이악하게 달려들어 몇년이 걸려야 하던 설비생산과제들을 불과 몇달만에 해치고 조인 로동계급의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평양 326전선공장 일꾼들은 대중의 창조적열정과 적극성 발동과 공생산설비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경제조직사업을 잘 짜고들었다. 공작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대조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날마다 대축전의 동용을 높이 올려내어 이곳 일꾼들과 로동자들의 물결무

의 크나큰 은성수에 마려면 현대적인 생산공정들과 설비들이 생산선에서 큰 은을 내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북방화력발전연합기업소와 남포청년화력연합기업소에 보내준 설비부속품생산과 공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함흥청년전기기기공장의 일꾼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과학기술의 힘에 철저히 의거하여 무리들과 체면합의 질을 부러뜨리면서 부분품생산을 끊임없이 높였다.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당

의 크나큰 은성수에 마려면 현대적인 생산공정들과 설비들이 생산선에서 큰 은을 내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북방화력발전연합기업소와 남포청년화력연합기업소에 보내준 설비부속품생산과 공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함흥청년전기기기공장의 일꾼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과학기술의 힘에 철저히 의거하여 무리들과 체면합의 질을 부러뜨리면서 부분품생산을 끊임없이 높였다.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당

금성드라프트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들도 전화의 나날 근조로 로동계급이 발휘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떨쳐나 불리한 조건에서도 인민경제계획을 철필, 분기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당창건 일흔다섯돐에 높이 내세운 연간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중요대상설비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준 설비, 부속품생산에서 비범한 생산성과를 이룩한 기계공업성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얼마마다, 기대마다에서 계속혁신의 불길을 새차게 지켜올리고 있다.

안주뽕프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이 각종 뽕프특성시험장치의 현대화를 실현하였다.

뽕프의 회전수와 동력소비량 등을 컴퓨터를 리용하여 정확히 측정할수 있게 된 특성시험장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뽕프의 질을 확고히 담보하고 효율이 높은 뽕프개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끌어올리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며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공장의 일꾼들은 뜻깊은 올해에 뽕프의 질을 개선하고 성능이 더 높은 뽕프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특성시험장치를 현대화할 목표에 그 실현을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일꾼들은 대축전에 들어가 특성시험장치의 현대화실현이 가지는 중요성을 실감했기 때문에 특성시험장치를 현대화할 목표를 그 실현을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공장의 일꾼들은 뜻깊은 올해에 뽕프의 질을 개선하고 성능이 더 높은 뽕프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특성시험장치를 현대화할 목표에 그 실현을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조선속도창조투쟁의 불길은 이 날에 날마다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는 기계공업성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랑한 성과를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있게 들어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맞서고 사회주의수호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방패를 당당히 일흔들며 혁명적대항사로 빛내여야 하겠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기계공업성에서 지난 9월 30일까지 연간인민경제계획을 115%로 넘쳐 수행하였다. 발전설비생산계획을 131%로 넘쳐 수행한것을 비롯하여 전동기, 변압기, 감속기, 전선생산 등 지표별계획수행에서 뚜렷한 성과가 이룩되었다.

기계공업성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의 구호를 배에 쏘아박고 일꾼들과 로동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한다면 백 번 승리한다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올해 기계공업성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점령해야 할 목표는 지난 시기에 비할바없이 확대되었고 막이내서는 난관도 많았다.

성당조직을 비롯한 기계공업성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대중의 정신평발전에 10월의 대축전과 이어진 승리의 길이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행정경제 일꾼들이 대상설비와 부속품의 생산조직과 지휘도 화신으로 해나가도록 하였다.

성에서는 중요대상설비들과 인민경제선생부문에 필요한 설비를 제때에 보내주는것을 선차적인 과업으로 내세우고 정초부터 경제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성일꾼들이 화신의 기관차마루 들끓는 현실에 내려가 걸린 고리를 적극적으로 풀어주면서 아예단위 일꾼들과의 협동작전을 잘하여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는 로동계의 투쟁에 거센 박자를 가해 주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이 어려웠는데 인민중기계연합기업소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발전설비생산에서 경이적인 성과를 안아왔다.

대인의 로동계급은 올해에 청천강계단설비발전소건설장에 보내준 발전설비생산은 빛나게 계속해나가고 있다. 불과 석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의 발전설비들을 성과적으로 생산보장함으로써 당이 준 과업을 결사관철하고 연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연합기업소일꾼들과 로동자들은 당의 요구처럼 물과 불속에이라도 뛰어들어 기어이 해내야 한다는 투철한 각오를 안고

이악하게 달려들어 몇년이 걸려야 하던 설비생산과제들을 불과 몇달만에 해치고 조인 로동계급의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평양 326전선공장 일꾼들은 대중의 창조적열정과 적극성 발동과 공생산설비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경제조직사업을 잘 짜고들었다. 공작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대조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날마다 대축전의 동용을 높이 올려내어 이곳 일꾼들과 로동자들의 물결무

의 크나큰 은성수에 마려면 현대적인 생산공정들과 설비들이 생산선에서 큰 은을 내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북방화력발전연합기업소와 남포청년화력연합기업소에 보내준 설비부속품생산과 공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함흥청년전기기기공장의 일꾼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과학기술의 힘에 철저히 의거하여 무리들과 체면합의 질을 부러뜨리면서 부분품생산을 끊임없이 높였다.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당

금성드라프트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들도 전화의 나날 근조로 로동계급이 발휘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떨쳐나 불리한 조건에서도 인민경제계획을 철필, 분기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당창건 일흔다섯돐에 높이 내세운 연간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중요대상설비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준 설비, 부속품생산에서 비범한 생산성과를 이룩한 기계공업성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얼마마다, 기대마다에서 계속혁신의 불길을 새차게 지켜올리고 있다.

## 김일성경기장창립 70돐 기념보고회 진행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김일성경기장창립 70돐 기념보고회가 14일에 진행되었다.

김일성체육성, 기획부, 경기개발위원회와 중앙위원회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김일성경기장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김일성경기장은 태양의 함포로 빛나는 영광의 혁명적단위이며 국가적인 중요지문화행사들과 국제국내체육경기를 보장하는 인민의 체육전당이라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제 34(1945)년 10월 14일 경기장의 전신인 모란봉공설운동장에서 역사적인 조국개신선설을 하신 때로부터 경기장은 23차례나 찾으신어 나아가 방랑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경기장관리운영에 세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고 후대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세부로 꾸리시기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었다.

위대한 평노드 김일성동지께서는 탄생 40돐이 되는 뜻깊은 날에도 현지에 나오시어 어버이수령님의 인애와 권위보장에 중성을 두고 경기장개건확장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경기장에 태양의 존함을 모시도록 하여주시고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물려주시면서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기도록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이 깃들어 있는 김일성경기장은 깊은 판성을 돌리고있는 당중앙은 온 나라에 체육강국건설의 열풍을 지펴주셨으며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해주고 경기장을 세계적수준에서 더 잘 꾸리도록 하였다.

김일성경기장은 창립후 지난 70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은혜로운 사랑속에서 자랑찬 발전을 걸어오면서 발전적 혁명업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김일성경기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실성을 지니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중요지문화행사들과 국제문화행사, 집단체조공연들과 체육경기를 성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에 커다란 기쁨을 드리셨으며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주체조선의 대외적전선을 파시하고 나라의 체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김일성경기장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열렬한 애국심을 지니고 경기장관리운영사업에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침으로써 주체조선의 체육과 위력을 파시하며 나라의 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지체인 림남식의 보고에 이어 기사장 김성국, 파장 한동배, 로동자 리경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안은 영광에 대하여 언급하고 축하문에 제시된 전투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며 당중앙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적으로 옹호하여서는 사업성과로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참된 혁명전사가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저속한 존함을 모신 영광의 혁명적단위에서 일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경기장관리운영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체육강국건설수상을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높이 계속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기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존엄높은 정치사상강국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며 체육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맡겨진 영예로운 혁명업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방송국창립 70돐 기념보고회가 14일에 진행되었다.

보고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오수용동지와 김광철제1상, 판계부, 방송국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조선중앙방송국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오수용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조선중앙방송국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이 깃들어 있는 배려를 물려주시었다.

조선중앙방송국은 창립후 지난 70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은혜로운 사랑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조선의 대외적전선을 파시하고 나라의 체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김일성경기장은 태양의 함포로 빛나는 영광의 혁명적단위이며 국가적인 중요지문화행사들과 국제국내체육경기를 보장하는 인민의 체육전당이라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제 34(1945)년 10월 14일 경기장의 전신인 모란봉공설운동장에서 역사적인 조국개신선설을 하신 때로부터 경기장은 23차례나 찾으신어 나아가 방랑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경기장관리운영에 세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고 후대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세부로 꾸리시기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었다.

조선중앙방송국창립 70돐 기념보고회가 14일에 진행되었다.

보고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오수용동지와 김광철제1상, 판계부, 방송국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조선중앙방송국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오수용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조선중앙방송국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이 깃들어 있는 배려를 물려주시었다.

조선중앙방송국은 창립후 지난 70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은혜로운 사랑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조선의 대외적전선을 파시하고 나라의 체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김일성경기장은 태양의 함포로 빛나는 영광의 혁명적단위이며 국가적인 중요지문화행사들과 국제국내체육경기를 보장하는 인민의 체육전당이라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제 34(1945)년 10월 14일 경기장의 전신인 모란봉공설운동장에서 역사적인 조국개신선설을 하신 때로부터 경기장은 23차례나 찾으신어 나아가 방랑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경기장관리운영에 세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고 후대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세부로 꾸리시기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었다.

조선중앙방송국창립 70돐 기념보고회가 14일에 진행되었다.

보고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오수용동지와 김광철제1상, 판계부, 방송국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조선중앙방송국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오수용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조선중앙방송국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이 깃들어 있는 배려를 물려주시었다.

조선중앙방송국은 창립후 지난 70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은혜로운 사랑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조선의 대외적전선을 파시하고 나라의 체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김일성경기장은 태양의 함포로 빛나는 영광의 혁명적단위이며 국가적인 중요지문화행사들과 국제국내체육경기를 보장하는 인민의 체육전당이라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제 34(1945)년 10월 14일 경기장의 전신인 모란봉공설운동장에서 역사적인 조국개신선설을 하신 때로부터 경기장은 23차례나 찾으신어 나아가 방랑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경기장관리운영에 세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고 후대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세부로 꾸리시기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었다.

조선중앙방송국창립 70돐 기념보고회가 14일에 진행되었다.

보고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오수용동지와 김광철제1상, 판계부, 방송국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조선중앙방송국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오수용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조선중앙방송국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이 깃들어 있는 배려를 물려주시었다.

조선중앙방송국은 창립후 지난 70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은혜로운 사랑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조선의 대외적전선을 파시하고 나라의 체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김일성경기장은 태양의 함포로 빛나는 영광의 혁명적단위이며 국가적인 중요지문화행사들과 국제국내체육경기를 보장하는 인민의 체육전당이라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제 34(1945)년 10월 14일 경기장의 전신인 모란봉공설운동장에서 역사적인 조국개신선설을 하신 때로부터 경기장은 23차례나 찾으신어 나아가 방랑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경기장관리운영에 세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고 후대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세부로 꾸리시기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었다.

조선중앙방송국창립 70돐 기념보고회가 14일에 진행되었다.

보고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오수용동지와 김광철제1상, 판계부, 방송국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조선중앙방송국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오수용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조선중앙방송국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이 깃들어 있는 배려를 물려주시었다.

조선중앙방송국은 창립후 지난 70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은혜로운 사랑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조선의 대외적전선을 파시하고 나라의 체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김일성경기장은 태양의 함포로 빛나는 영광의 혁명적단위이며 국가적인 중요지문화행사들과 국제국내체육경기를 보장하는 인민의 체육전당이라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제 34(1945)년 10월 14일 경기장의 전신인 모란봉공설운동장에서 역사적인 조국개신선설을 하신 때로부터 경기장은 23차례나 찾으신어 나아가 방랑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경기장관리운영에 세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고 후대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세부로 꾸리시기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었다.

# 조선로동당 창건 70돌 경축 청봉악단 공연 연일 성황리에 진행

【평양 10월 14일 조선중앙통신】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백두의 대업을 이룩하기 위한 총진군대오에 악동하는 생기와 활력, 열정을 북돋아주며 조선로동당 창건 70돌경축 청봉악단 공연이 연일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사상의 척후대, 혁명의 나팔수가 되어 백두산의 청신한 빛이 어리어지는 악단의 이름들이 예술활동실천으로 빛내어나가는 청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우리 당을 칭송하는 시대의 송가, 승리의 전군가를 10월의 경축무대에 펼쳐 놓았다.

공연장소인 인민극장은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영혼으로 존엄높은 불멸의 조선로동당에 대한 전인민적찬가를

높이 울려가는 우리 당의 친솔악단의 공연을 보기 위해 모은 군중들로 차고넘치었다.

수도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들, 외국손님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시곡 《당을 노래하노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여성2중창과 방창 《장군님생각》, 여성5중창 《기다립시다》, 여성중창 《사랑하노라》, 경음악 《사회주의 지기세》, 여성4중창과 방창 《영원한 메아리》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창연자들은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우리 당을 필승불패의 강위력한 전위조직으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또한 성스러운 불은 기록에 미치지 못하며 아로새길 때로부터 준엄한 력사의 돌풍속에서 오직 인민을 믿고 조국방위에 거창한 전진의 새 력사를 펼쳐며 백승만을 아로새겨온 위대한 우리 당의 력사를 예술적화곡으로 펼쳐졌다.

트럼페트를 위한 경음악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렷니다》는 관람자들의 심장마다 어머니당을 따르는 길에 영원한 승리와 번영이 있다는 철의 진리를 안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휘황찬란한 배일을 향해 힘차게 싸워나갈 철심의 신념을 간직하게 하였다.

철세위인들의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조선로동당의 70년사는 위대한 청년중시사상의 력사, 청년강국을 일떠세운 력사이며 우리 청년들을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의 계승자, 명장들로 키운 력사를 느끼는 격정속에 더듬어보게 하는 여성중창 《우리는 혁명의 계승자》는 만사람의 심금을 새치게 울려주었다.

관람자들은 당이 부르는 곳에 인생의 좌표를 정하고 죽어도 살아가도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해가는 전위투사들이 우리 청년들이 있기에 주체조선의 래일은 휘황찬란하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었다.

년대와 세기를 이어 천만심장을 주체의 넋으로 뉘뜨게 하며

인민의 모든 운명과 미래를 다 맡아 안아주는 우리 당을 격조높이 노래한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 《당중앙의 불빛》, 《어머니당의 불》, 《어머니의 목소리》, 《그대는 어머니》, 《영원히 한길을 가리》 등의 곡목들을 펼친 기악과 노래연곡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는 공연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여성3중창과 방창 《당이어 그대 있기에》, 여성3중창 《천근한 우리 원수님》은 영광의 날에나 시련의 날에나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오직 인민을 위하여 멀사복무하는 우리 당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려는 천만군민의 숭엄한 사상감정을 감명깊게 형성하였다.

탁월한 사상리론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혁명정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세계정치사에 전무후무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을 위대한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불멸의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무대배경에 모서질 때마다 열광적인 박수갈채가 터져오르고 장내는 뜨거운 격정에 휩싸였다.

무대에는 외국노래 《오! 수잔나》, 《로씨야처럼 노래연곡》 등의 종목들도 울렸다.

여성가수들의 맑고 개성적인 목소리, 우아한 풍동과 경음악의 활활한 울림, 음악적감흥을 돋구어주는 립체적인 조명 등은 10월의 경축무대를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총곡 《조선로동당 만세》, 《천리라도 만리라도》로 끝난 공연은 백두산철세위인들이 빛내어 주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우리 당을 받들어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한 영웅적전군길을 힘있게 다그쳐갈 우리 인민의 억척분변의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 비약의 숨결 높뛰는 전력생산기지

### 평양화학발전연합기업소 열생산 1 직장 로동계급

수도의 전력생산기지에 새로운 신심과 락관, 전매없는 창조와 비약의 기상이 새차게 나뉘고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최후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 어떤 끈나속에서도 견디어내는 강인한 의지의 소유자만이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오직 앞으로만 전진할수 있습니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돌을 뜻깊게 경축하는 그 시작은 나라 인민들에게 조선로동당을 대표하여 깊이 히리속여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린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의 연설을 받아안고 격정의 눈물을 흘린 평양화학발전연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이다.

어머니당과 영원히 운명을 함께 하리!

뜻깊은 그 시각 심장의 박동을 더해주던 이 밤새가 이곳 열생산 1 직장 전무장에도 그대로 차넘치고있다.

《전력은 생산의 기본동력이다.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여 인민경제의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자!》와 같은 힘있는 글자들이 전무장 곳곳에 나붙어 로동자들을 전력증산으로

적극 고무해주고있다.

현장을 돌아보며 맡은 설비들을 주의깊게 살펴는 운전공들도 그러하지만 조작공들은 수십개의 계기들과 각종 신호등을 감시하느라 순간도 긴장을 늦출새 없다.

《모두 들라요, 보이러들의 상대를 보고하라.》

1 교대 교대장 리수길동무의 목소리가 작업현장을 울린다.

《3 호기 증기압력, 온도 정상!》

《4 호기 증기, 배중상대 좋다.》...

보이러의 가동상태를 알리는 보고가 연이어 들어온다.

운명부직장장 박경린동무의 말에 의하면 증기생산이자 곧 전력생산인것으로 하여 조작공들의 책임성은 이만저만 아니라 높은것이다.

새해 첫날부터 높은 생산성과로 줄담을쳐는 열생산 1 직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열의는 어머니당에 기쁨만을 드린 한마음으로 하여 더욱 기세충천한다.

청년동맹원의 긍지와 자방을 안고 맡은 일에서 높은 책임감을 발휘해나가는 강운성, 김진명동무들의 모습도 미덥지만 20여년간 성실한 밤과 노력으로 전력생산에 이바지해온 리수길동무를 비롯한 당원들의 모습은 또 얼마나

몰들한가.

직장이 이룩한 위훈과 성과속에는 보이러들에 대한 보수작업을 도맡아해온 보수작업반원들의 말없는 수고도 깃들여있다.

얼마전에도 이들은 1호보이러에 대한 보수작업에서 높은 헌신성을 발휘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연세나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위하여 투쟁해온 어머니당을 높은 전력증산으로 받들어가는 길에서 자기들의 본분을 다해가려는 이곳 로동계급의 불같은 마음어린듯 시간이 흐를수록 설비들의 통음이 더욱 우렁차게 들려온다.

본사기자 홍성철

## 수영관 새로 건설

### 대흥단군에서

대흥단군에서 수영관을 새로 건설하였다.

맑은 물이 흐르는 흥단수기슭에 동근지붕형식으로 특색있게 건설된 수영관은 양수동력을 전혀 쓰지 않고 수영장에 물을 채워놓을뿐 아니라 태양열로 물온도도 보장할수 있게 되어 있다.

대흥단군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꾸리시려는 백두산철세위인들의 넘칠만한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할때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긴 군의 일군들은 수영관을 건설하기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세우고 실천에 달려나갔다.

그들은 공사조직과 지휘를 인민군대의 지휘관처럼 맡아 있게 진행하는 한편 화신식 정치사업으로 양양된 대중의 열의를 더욱 불러일으키면서 자체보장을 철저히 앞세워 공사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가고 있었다.

건설자들은 제일 어려운 과제인 기초조각과 수영장물량공사를 짧은 기간에 외닥다 해체하고 벽체쌓기와 내외부 미장, 타일붙이기 등을 설계와 시공의 요구대로 질적으로 하였다.

지방자재를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공사를 중단없이 내밀었

으며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수영관동근지붕트라스조립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의 원칙을 구현하면서 단 몇달사이엔 위생문화적인 환경과 조건이 잘 갖추어진 수영관을 손색없이 완공하였다.

천정과 바닥을 푸른색으로 처리한 수영관은 산물마을에 바다를 떠올려준듯 같은 이채로운 풍경을 펼쳐고있다.

새로 일떠선 수영관으로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찾아와 즐기기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있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 재일동포 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 시

만수대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4일 재일동포 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

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셨으며 후원의 강화발전이 불멸의

공헌을 하신 철세위인들의 혁명생애를 가슴깊이 품어 키워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 해외동포들과 외국 손님들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조선로동당창건 70돌경축 김일성김정일화진시회에 참가한 최희복 중국 전 연변과학기술대학 부총장과 리영호

중국 단둥성민우유한공사 리사장과 임행, 최영준 부리사장은 단둥으로 하는 중국 철강건설중추공업유한공사대표단을

사진을 찍었다.

해외동포들과 외국 손님들은 이밖에 개신문,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등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싱가포르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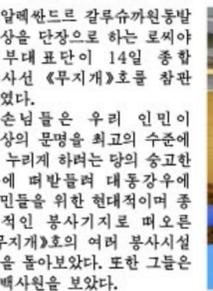
싱가포르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임명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에 의하면 싱가포르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

대사로 김철남동지가 임명되었다.

【조선중앙통신】

## 로씨야 정부 대표단 종합봉사선 《무지개》호 참관



알렉산드르 갈무슈카원동발 전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 정부 대표단이 14일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우리 인민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려는 당의 숭고한 뜻에 떠날수록 대동강상에 인민들을 위한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봉사기지로 떠오른 《무지개》호의 여러 봉사시설들을 돌아보았다. 또한 그들은 정백사원을 보았다.

조선과 로씨야정부사이의 무역, 경제 및 과학 기술협조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의 회담록 조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로씨야연방 정부사이의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공동위원장의 회담록이 14일 평양에서 조인되었다.

조인식에는 조로정부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우리측 위원장인 리봉남 대외경제상, 판계부근 일군들과 로씨야측 위원장인 알렉산드르 갈무슈카원동발 전장, 로씨야정부대표단 성원들이 수료하였다.

## 인도네시아 공화국 인민협상회의 헌법심의 위원회 대표 도착

때때 하사누딘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인민협상회의 헌법심의위원회 대표단이 14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판계부근 일군들과

판드르 마예고라 주조 로씨야 연방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리봉남위원장과 알렉산드르 갈무슈카원동발이 회담록에 수료하였다.

비행장에서 리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과 주조 로씨야연방대사판 성원들이 전송하였다.

## 재일동포 조국방문단 도착

리청자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1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신의주시출판물보급소에서

당창건 일흔흔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뜻깊게 경축한 기쁨 안고 신의주시출판물보급소에서 백두산철세위인들과 우리 당의 위대성선전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수령과 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켜 그들이 우리 수령이 제일이고 우리 당이 제일이며 우리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이라는것을 깊이 간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는 가슴마다에 받아안은 출판물보급소에서는 년초부터 도서를 통한 위대성선전에 힘을 넣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가도록 사업을 짜고 들었다.

소장 장혜순동무와 출판물보급원들은 우선 도서를 통한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선전을 방법론 있게 진행하기 위한 준비사업에 힘을 쏟았다.

출판물보급소에서는 뜻깊은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흔이 되는 올해에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명백》,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총대》, 총서 《총성의 한길에서》 장편소설 《봄빛》에 대한 해설문을 잘 만들어 백두산철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을 적극 해설선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과 명도의 혁명성, 인민적 성품으로 보여주는 도서들에 대한 선전활동에 큰 힘을 쏟았다.

해설문을 준비한 출판물보급원들은 그에 맞게 여러가지 노래곡목들을 선정하고 화순기량도 높이기 위하여 애

이렇게 빈틈없는 준비를 갖춘 리금주, 리순미, 리준영, 성현화동무들을 비롯한 출판물보급원들은 막대한 열정을 발휘하여 신의주시출판물보급소, 신의주화장공공장, 신의주방직공장, 신의주시 석하형용농장을 비롯하여 수십개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과 동, 인민반들에 나가 도서를 통한 위대성선전을 힘있게 벌려왔다.

신의주역에군인리직공장에 나간 출판물보급원 리금주동무는 총서 《총성의 한길에서》 장편소설 《봄빛》에 대한 도서 해설모임을 통하여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심어주어 그들을 생산적양인으로 적극 불러일으켰다.

시당위원회 회의실에서 이들이 진행한 위대성선전에 감동을 금치 못해하면서 많은 일군들이 이곳 출판물보급원들에게 자기 단위에 꼭 와줄 것을 부탁하였다.

지금 이곳 출판물보급원들은 도서를 통한 위대성선전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시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 은 위훈창조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도서를 통한 위대성선전 활발



# 민족공동의 통일방안을 부정하는 《제제통일》론

최근 남조선당국자들이 《통일》에 대하여 어느때없이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 있다. 그들의 입에서는 《통일대박》이니, 《통일준비》니 하는 말들이 그야말로 물소리 못 하고 있다. 이런 속에 남조선집권자는 그 무슨 《통일의교》라는 간판을 둘러메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저들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고 있다.

자루속의 송곳은 뼈에 지나오기 마련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제이무리 《통일》을 운운하며 너스레를 떨어도 북남대결과 《제제통일》을 추구하는 그 더러운 본성은 절대로 감출수 없다. 유엔총회 제 70차회의에서 남조선집권자가 《통일》에 대해 몇몇이나 수작질한것은 외세와 야합하여 《제제통일》의 개공을 실현해보려고 남뛰는 그나마의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놓은 것이다.

《제제통일》은 민족적대안을 몰아붙인 것이다. 북과 남은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따라 민족적화해와 단합에 기초하여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유일한 방안은 평화적통일이다.

우리 민족이 외세의 분별책으로 갈라진지도 어느덧 70년이 되었다. 북과 남은 오랜 세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 살아왔고 또 다른 자기의 사회제도와 정치체제를 포기하려 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적조건에서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할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평화적통일의 통일국가를 창립하는것 뿐이다.

하기에 우리 공화국은 벌써 35년전에 고려민주평화통일국창립방안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

울어왔다. 우리의 평화적통일방안은 같은 민족이라는 공통성을 토대로 하여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융합하는 기초 위에서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에서 북과 남이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평화공존국을 창립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사상과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평화적통일은 북과 남의 모든 계급, 계층들과 각양, 각파가 다같이 받아들일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공평정대하며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다. 그러므로 하여 평화적통일방안은 오늘날도 온 민족과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고 있다.

수여부기 평화적통일은 북과 남의 두이분들이 합의하고 6.15공동선언을 통해 내외에 천명된 민족공동의 통일방안이다.

북과 남은 6.15공동선언에서 북측의 낮은 단계의 평화적통일과 남측의 연합제에 대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하였다.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통일국가건설의 휘황한 전망을 열어놓은 이 역사적인 합의야말로 평화적통일방안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반증이 된다.

북과 남이 온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평화적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가 평화적통일이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운운하는 《통일》은 동족의 사상과 제도를 해치고 저들의 역이었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 조신반

도에 부식시켰을 노린 반민족적인 《제제통일》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일방이 타방의 사상과 제도를 집어삼키는 《제제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하에서의 통일》을 정책적목표로 내세우고서도 《북의 역, 《인권》문제해결》 방도는 《통일》이라고 공공연히 떠들고있는것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남조선집권자는 썩어빠진 《통일은 대박》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그의 《통일대박론》이라는것이 《통일》로 《자유시장경제》가 남조선의 범위를 넘어 확대될 경우 《국민총생산액》은 얼마이고 《경제성장률》은 얼마이라는 식의 극히 수권노적인 타산에 기초한것으로서 철저한 《제제통일》론이라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통일준비》니, 《통일의교》니 하는것들도 본질에 있어서 저들의 《제제통일》야망을 비화하기 위한 방편일 따름이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구국의 힘으로 실현해야 할 민족적중대사이다.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리해관계가 같고 있는것도 우리 민족이고 통일을 갈망하고 있는것도 우리 민족이며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힘도 다름아닌 우리 민족에게 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도이철란트를 그 무슨 《통일의 모험》내내우면서 그 경험은 본과 《제제통일》의 개공을 실현하려고 발광하고 있다. 얼마전 남조선통일부 장관 홍용표가 열린한대에서 진행된 통일기념식이라는데 참가하여 이따금 저러쿵 나발질한것을 그들이 말해준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아무리 《통일대박》이니, 《통일준비》니, 《통일의교》니 하고 떠들어대도 저들의 꿈속에 짙 들어찬 《제제통일》야망은 가려울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추구하는 《제제통일》은 일방의 제도를 타방으로 연장하는것으로 북남사이에서 불신과 대립, 전쟁밖에 초래할것이 없다. 이미 지난 1950년대 리소반역도는 《제제통일》론을 제창하며 미국을 등에 업고 북침전쟁을 도발함으로써 우리 민족에게 해어질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뜨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자멸을 몰아오는 《제제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외세에게 동족살상을 청탁하는 이리서서 통일을 당장 저지우려 민족공동의 평화방안을 현행한 6.15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북남관계의 개선을 바라지만 민족공동의 통일방안을 부정하면서 《제제통일》책동에 미쳐달래는자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추구하는 《제제통일》은 영원히 실현될수 없는 망상이며 그것은 그들자신의 종국적과멸과 잇닿아있다. 후회는 항상 뒤따르는 말이다.

남조선당국이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것과 같은 《제제통일》야망을 버릴 때는 왔다. 심

심

적 로동자들이 정규직을 요구하며 고용불성을 벌리고 있다. 그들은 추심명정도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하였다.

생존선사수를 위한 투쟁은 민심입의 요구와 의사를 외면하고 극소수 특권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하여온 보수집권세력의 반역적행위가 물아는 필연적결과이다.

최근시기 세차례 벌어지고 있는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은 그에 대한 뚜렷한 필증이다. 남조선에서 생존권을 위한 로동자들의 투쟁은 비단 어제 오늘에 시작된것이 아니다. 지금 남조선로동자들은 아무리 로동능력이 있고 기술기능수준이 높다고 하여도 밥벌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돈벌이와 리용추구에 환장한 기업주들은 당국을 등에 업고 로동자들을 비정규직이라는 값싼 노동력으로 고용하여 버려두고 있다. 힘없고 일을 시키지도 가져들이고 해고되고 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쌍용자동차 로동자들에게 대한 해고논

은 그 대역적실례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로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취하지 않고 오히려 기업주들의 편에 서서 더욱더 가혹한 로동조건들을 강요하고 있다. 최근 남조선당국이 각계의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로동시장구조개선》과 《제정근로법》의 도입을 추진하고있는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남조선의 로조단체들은 당국이 버려놓고있는 그러한 논을 쉬운 해고와 로조달을 노린 친체법정책의 산물이라고 단정할수 있다. 남조선집권세력이 그 무슨 《로소정대타협》이니 뭐니 하며 로동자들을 생각하는것이 오그 랑수를 쓰고있지만 그것은 파멸적인 기만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의 반역행위는 로동자들의 더 큰 항거만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투쟁의 파국은 보수집권세력에게로 집중되고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현실을 통해 집권세력의 반민적악행을 물살내기 위한 절결한 투쟁에 자기들의 생존권을 실현하는 길이 있다는것을 똑똑히 깨달았다. 보수당국의 반민적악행을 그대로 두고서는 언제라도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뼈저리게 체감한 그들이었다. 하기에 그들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반《정부》투쟁을 연일 힘차게 하고 있다.

본사기자 리성호

# 《인권》보자기에 숨겨진 대결야망

자기의 허물과 검은 속심을 감추고 남을 해치기 위해 없는것은 남조선대박을 꾸미는것은 남조선의 반공일분자들의 상투적수법이다. 그것은 바로 반공화국《인권》판대극에서 똑똑히 드러나고 있다.

최근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인권》연말연세에 달하고 있다. 얼마전에도 남조선집권자는 유엔총회 제 70차회의에서 《유엔총회의 요구》니, 《인권개선추진》니 뭐니 하며 우리의 존엄과 체체를 무참하게 헐뜯으면서 외세에 저들의 반공화국《인권》소통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호명했다. 북남사이의 공동보도문발표로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와 협력을 추구해나갈수 있는 조건이 일단 마련된 때에 터무니없이 《인권》이 어찌되지 않아야 하며 《인권》을 하루빨리 실현할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평화적통일의 통일국가를 창립하는것 뿐이다.

최근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인권》연말연세에 달하고 있다. 얼마전에도 남조선집권자는 유엔총회 제 70차회의에서 《유엔총회의 요구》니, 《인권개선추진》니 뭐니 하며 우리의 존엄과 체체를 무참하게 헐뜯으면서 외세에 저들의 반공화국《인권》소통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호명했다. 북남사이의 공동보도문발표로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와 협력을 추구해나갈수 있는 조건이 일단 마련된 때에 터무니없이 《인권》이 어찌되지 않아야 하며 《인권》을 하루빨리 실현할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평화적통일의 통일국가를 창립하는것 뿐이다.

최근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인권》연말연세에 달하고 있다. 얼마전에도 남조선집권자는 유엔총회 제 70차회의에서 《유엔총회의 요구》니, 《인권개선추진》니 뭐니 하며 우리의 존엄과 체체를 무참하게 헐뜯으면서 외세에 저들의 반공화국《인권》소통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호명했다. 북남사이의 공동보도문발표로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와 협력을 추구해나갈수 있는 조건이 일단 마련된 때에 터무니없이 《인권》이 어찌되지 않아야 하며 《인권》을 하루빨리 실현할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평화적통일의 통일국가를 창립하는것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허황한 남조선로동들에 기초하여 우리를 모욕하는 《인권》소통을 광기적으로 벌리고 있다.

지난 5월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뉴욕에서 유엔《북인권토론회》, 《최초토론회》니 하는것을 벌여놓았는데 여기에서 울려나오는 수작질은 하나같이 우리의 현실을 심히 외곡하고 악의에 차서 헐뜯는 잡소리들뿐이었다. 그 것이 몇몇의 돈에 명줄을 건인 간스메기들의 허위증언과 그에 따른 모략선동이외에는 이미 세상에 날음이 푸르르였다.

허위사실을 날리는것이 반공화국《인권》소통을 벌리는것인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는 결과밖에 있어있지 않는다. 이같은 명백하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종교인민들도 보수당국의 반공화국《인권》소통에 대해 《북을 자극하는 대결선동》으로 락인한 면서 강력히 규탄해격하고 있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통족에 대한 사조적적인 거부감과 적대감을 사조잡히 반공화국《인권》소통을 날로 더욱 확대강화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기독교》가 《인권》소통에 대한 대결적반응을 조장하고 있다. 이것은 북남관계에 개선이 아니라 대결의 극한점에, 전쟁으로 몰아

가기 위한 흉악한 기도의 집중적표현이다.

우리는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인권》소통을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단호하게 대응해나갈것이라는것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최근 남조선집권자는 썩어빠진 《통일》을 대결적기반을 다져내면서 《북인권》문제해결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통족들을 반공화국도발에로 극구 부추겼다. 남조선집권세력이 서울에 유엔《북인권조사단》을 끌어들인 것이 이북남합의정신을 공공연히 역행하면서 《북인권》조사단행동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더구나 일종한것은 남조선당국이 《인권》의 간판하에 미국과 공조결탁하여 우리의 존엄을 세도들 한사코 말살하려고 피를 물고 날리고있는것이다. 우리 공화국의 《제제통일》야망은 미국과 《제제통일》야망에 사로잡힌 남조선당국의 리해관계의 일치에 따른것이 바로 반공화국《인권》소통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없이 명백하다.

남조선당국은 미국을 비롯한 외세들 통해 입고 《인권》모락으로 국제적인 반공화국감각을 조성하면서 《제제통일》야망에 대한 파국상태에 빠지는 경우 크획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이 지야 한다.

본사기자 장윤남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 당국과 여당세력이 강행하고있는 《역사교과서국정화》에 대한 반대행위의 목소리가 날로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7일 서울은 물론 경상남도, 충청남도 등 비롯한 10개 지역의 100여개단체들이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교과서국정화》책동에 반대하는 제 집단체로 락인하면서 규탄성명들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속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교과서국정화》를 《독재적인 발상》, 《역사인식왜곡》으로 규탄하고 의원총회에서 반대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역사교과서국정화》를 강행한다면 유신체제의 향수를 느끼는 유신집체세력으로 규정되고 강력한 저지투쟁에 나

나오겠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국정화》추진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역사교과서국정화》는 역사교육의 말살이라고 심도했으며 교육위원회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역사해석을 주시시켰다는 시도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법학계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학교수와 법학관련연구소 연구자 등 107명이 참가한

실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하면서 유엔총회는 《교육학자, 역사학자 등 대부분 전문가들이 반대하였다. 야당과 민중을 무시한채 《국정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이하여 남조선의 교육계, 학계, 법학계에서도 항의의 목소리가 그칠새없이 울려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국정화》추진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역사교과서국정화》는 역사교육의 말살이라고 심도했으며 교육위원회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역사해석을 주시시켰다는 시도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법학계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학교수와 법학관련연구소 연구자 등 107명이 참가한

독도를 조선령토로 표기한 일본 지도를 공개

역참고도》를 제작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일본국회가 이를 승인하였으며 당시 문내내용이 국회의회의록에 자세히 기록되어있다. 1952년 5월에는 일본의 한 주요인물사자 독도를 조선령토로 표기한 또 다른 지도인 《일본영역도》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독도연구포럼 대표는 이 사실들을 밝히면서 지도들이 당 시 일본정부와 국회가 독도를 조선령토로 인정하였음을 증명해주고있다고 강조했다.

1952년 5월에는 일본의 한 주요인물사자 독도를 조선령토로 표기한 또 다른 지도인 《일본영역도》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독도연구포럼 대표는 이 사실들을 밝히면서 지도들이 당 시 일본정부와 국회가 독도를 조선령토로 인정하였음을 증명해주고있다고 강조했다.

독도연구포럼 대표는 이 사실들을 밝히면서 지도들이 당 시 일본정부와 국회가 독도를 조선령토로 인정하였음을 증명해주고있다고 강조했다.

독도연구포럼 대표는 이 사실들을 밝히면서 지도들이 당 시 일본정부와 국회가 독도를 조선령토로 인정하였음을 증명해주고있다고 강조했다.

가운데 《역사교과서국정화》를 반대하는 법학전문가인민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역사교과서국정화》는 교육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뿐 아니라 교육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규탄하였다.

남조선의 《연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연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연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연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연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연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연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연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연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연합뉴스》에 의하면

사, 학부형, 시민들이 참가하는 등 《국정화》반대투쟁의 불길은 세차게 타고르고 있다.

여기에 미국, 캐나다, 영국, 도이칠란드를 비롯한 10여개 나라에서 살고있는 수많은 해외동포들까지 《국정화》를 규탄하는 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남조선교육부는 현재

검정체제로 발행되고있는 중학교역사교과서 17종을 《국정》체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것은 남조선 각계의 커다란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으며 집권세력이 강행하고 있는 《역사교과서국정화》책동이 결국은 그들자신의 파멸을 앞당기는 대중적인 반《정부》투쟁을 불러일으켰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김철남

고용형태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독도영유권》을 고집하는것이야말로 역사를 대한 완전한 부정이자 외곡이다.

조선반도재일야망실현을 위해 일본반동들이 독도강탈동에 집요하게 매달리며 그것을 합법화하려 하고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부당성은 더욱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책임진다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미국이 상임리사국으로 있는 한 이거는 평화보장은커녕 오히려 평화파괴와 유린을 불러일으키는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하기에 국제사회에서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더욱 높고 있다. 참가국들은 일치하게 국제법에서 유엔이 중립적일수밖에 없어야 한다는 유엔의 민주화를 실현하는것이 중요하며 특히 총회의 권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베네수엘라대통령은 한 TV방송과의 회견에서 유엔의 개혁을 호소하고 나서 지금이야말로 유엔이 국제법을 완전히 혁신해야 할 때이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성원국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네갈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한 연설에서 오늘의 세계는 1945년의 세계가 아니라 지적발전이 유엔의 개혁을 요구한다. 유엔의 개혁을 지지하면서 새로운 성원 현실에 맞게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개혁하여야 한다는 아프리카 나라들의 일치한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본사기자 라명성

# 자기의 사명에 맞게 새로운 변혁을 가져와야 할 유엔

얼마전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제 70차회의가 개막되었다. 회의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190여개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이번 유엔총회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커다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유엔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국제무대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사업에서 새로운 전진과 발전을 추동해나갈수 있도록 이바지 할 열의에 충진되어있다.

지금 유엔은 자기의 활동원칙을 철저히 지키지 못하고있으며 모든 나라들의 총의를 대변할 대신 일부 나라들의 강권과 이종지행위를 합리화하는데 도용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유엔무대에서는 미국의 세계적패권을 합리화, 합법화해주는 결의안 결의들이 날치기로 채택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유엔과 유엔원장을 무시하고 《안보리》의 간판하에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제멋대로 간섭하고 정경과 막탈을 일삼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나라들에서 유엔합과 부정적인 사대들이 연이 연이어나고 있다.

미국이 유엔무대에서 파멸치게 높아내는 행위를 한가지 사실을 놓고 보기도 하자.

1990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제 678호가 채택됨으로써 미국을 위시로 한 국제연합세력은 이라크에 전쟁포고하고 《사막폭풍작전》을 개시하였다. 유엔주재 《파이낸셜 타임스》 특파기자들의 회고에 의하면 바로 이같이 채택된 결의는 국제 대대적인 암거래를 벌리고 있다.

한때 당시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반이라크결의가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 콜롬비아, 오프디파르 등 여러 나라들에 찬성하는 경우 재 《연조》를 줄것을 약속하였다. 그때 예멘은 이 결의안에 반대해 표의를 차지하는 700만USS의 미국 《연조》를 잃은 나라들중의 하나로 중진 되었다. 결국 미국이 내놓은 결의안에 대한 찬성표가 700만USS에 달했는데, 이렇게 미국은 유엔무대에서의 자들의 패권적의지를 추구하기 위하여 돈으로 결의표결권을 팔고있는 나쁜 행위를 벌이고 있다. 신과 야,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부정의가 서로 뒤바뀌어지는 비정신적인 현상이 반복되고있는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계이고 70년 동안 유엔무대에서는 이것이 예사사 리화하는데 도용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베를루세대통령 알렌드르 루카넬로는 지속적인 발전에 관한 유엔수석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최근에 국제기자들이 현 세계대국들의 비위를 견디면 개별적인 나라들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되는대로 귀착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유엔에서는 많은 결의들이 채택되고있지만 그에 대한 말은 분해해결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나라들에서 유엔합과 부정적인 사대들이 연이 연이어나고 있다.

미국이 유엔무대에서 파멸치게 높아내는 행위를 한가지 사실을 놓고 보기도 하자.

1990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제 678호가 채택됨으로써 미국을 위시로 한 국제연합세력은 이라크에 전쟁포고하고 《사막폭풍작전》을 개시하였다. 유엔주재 《파이낸셜 타임스》 특파기자들의 회고에 의하면 바로 이같이 채택된 결의는 국제 대대적인 암거래를 벌리고 있다.

미국이 유엔무대에서 파멸치게 높아내는 행위를 한가지 사실을 놓고 보기도 하자.

미국이 유엔무대에서 파멸치게 높아내는 행위를 한가지 사실을 놓고 보기도 하자.

몽골은 아시아의 중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내륙국가이다. 이 나라 경제에서 기본은 축산업이다.

《축산의 나라》로 불리울만큼 몽골의 축산업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말을 타고 무연한 초원을 하얏대 뒤덮고 구름떼마냥 흐르는 양떼들을 목아는 유목민들의 모습은 이 나라의 고유한 풍경을 이룬다. 집짐승을 방목할수 있는 풀은 양떼의 거의 80%를 차지하며 많은 주민들이 축산업에 종사한다. 주요집짐승은 양, 염소, 말, 소 등이며 인구 1인당 집짐승마리수는 세계적으로 앞선 자리를 차지한다.

이 나라 정부에서는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최근년간 목축업위주의 농업구조를 다각질러 개조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다. 결과 한곳에 정착하여 농사를 기본

으로 하는 농민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감자 등이며 그 기본생산지는 기후 및 토양조건이 비교적 좋고 판에 유리한 북부의 평원지대이다.

산림은 인류의 생존과 경제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귀중한 재부이다. 이 나라에서는 사막화를 막

기 위해 산림보호와 함께 산림조성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있다. 정부에는 매년 5월과 10월 두번째주 토요일을 전국적인 나무심기날로 정하고 모든 주민들이 나무심기에 떨쳐나서도록 하고 있다.

몽골은 대외적으로 불확실가담정세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

오늘의 몽골

본사기자

#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최근 육해공대대인은 현대의 기

본사기자

# 오늘의 몽골

최근 육해공대대인은 현대의 기

본사기자